

한국광학산업의 번영을 바라며

글 : 홍 경 회 / 육군사관학교 교수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위원장

1. 서 론

산업전선의 일선상에서 수고하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때는 국제화시대, 다시말하면 국제경쟁이 치열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며 이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방면으로 경주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쟁에서 버티어 나가기 어렵다. 물론 지난날까지도 모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기때문에 이만큼이나마 경제가 성장하였고 국력도 신장하였지만 지금은 더 더욱 정신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 밖에 없는 긴장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행정부 관계당국에 바라는 바를 한두 가지만 논하고자 한다.

2.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때

이제는 각 기업마다 기술개발이 없이는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는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기업과 기업, 산업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와 행정부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국내 산업간의 경쟁심이 고조되어 서로 신뢰하지 않거나 협력을 꺼리는 것 같다.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경쟁대상을 국내로 좁히지 말고 국외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의 자세가 미흡한 것 같다.

일본은 과거에 독일과 미국을 상대로 경쟁하면서 공동애로기술의 협동적인 노력을 잘 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미약한 힘이지만 서로 협력하

여 성공을 하였고 드디어는 그들을 밀어내고 세계제일의 기업들로 성장하기까지 하였다.

예를들어, 정부에서도 전자부품개발연구소를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시도한 바 있으나 기업간의 양보와 협력이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당장 눈앞의 적은 손실을 두려워하다가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었다. 중소기업은 전문화하여 기술을 축적하여야 하며 대기업은 보다 앞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계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간에도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공동애로기술의 개발을 위해 광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각 기업에서 연구비와 기술인력을 분담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얻은 결과는 투자비율로 우선순위에 의해 분배하여 기술도입 등의 외국 의존을 탈

피하여야 하겠다.

광기술연구센터를 통해 기술인력의 양성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계와도 연계하여 국내기술의 총력을 집중시키고 정보와 자본도 집중시켜 최대효과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한편 국외로 기술연수를 보내는 경우를 보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이 무엇이 아쉬워 한국 기술진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술을 습득시켜 주겠는가! 국내에서 최대한 훈련을 하고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것만 선별적으로 국외로 보내어 필요한 기술습득 및 정보획득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산.학.연 및 관련기관의 상호 신뢰성 확립이 필요

이러한 협력은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 행정당국의 정책도 일관성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기업과 기업간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촉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 보살피야 하겠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도 사전의 준비와 치밀한 계획하에 확실한 실행가능성이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기업도 참여하기를 꺼리게 마련이다.

기업도 정부에 대해 무조건 보호 육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간에 서로 협력하여 정직하고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건의를 하여야 정책반영의 명분이 서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통계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 취지와 정신을 살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융통성 있게 발전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국산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수치적으로 국산화 비율만 높이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의 존을 탈피하는 방향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국산화율이 저조하여도 중국에 가서는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술인력양성도 기업체에서 예상수요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기, 필요하면 대학에 신설학과를 설립할 수도 있고 기존학과에 정원을 확충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교육부와 상공자원부 과기처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도 항상 긴밀한 협조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중간 교량역할을 한국광학기기협회와 같은 관련협회, 협동조합 및 연구조합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오는 21세기를 앞두고 기업과 기업, 산업체와 학교 및 연구소, 그리고 관계 행정부서가 더욱 상호 두터운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겠다. 정보교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주도면밀하게 기획하여 기술개발, 시장개척, 인력양성 등 노력을 집중하면 능히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상호 협력, 제반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바란다.

현재 존립하고 있는 각종 협회, 협동조합, 연구소 및 교육기관 등을 최대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라도 상호 신뢰를 확립하고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려운 이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자!

한국광학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